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2023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김남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2023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 남도매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김재진)는 6월 27일, 지사 운영대의원 및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운영대의원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금년도 지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농지은행사업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우리지역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등 현안에 대하여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 및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김재진 지사장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운영대의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지역 농업인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지사 전 직원은 운영대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